

제1차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 1. 25.(목) 19:00~21:10
- 장소 :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제1차 부산대학교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2024. 1. 25.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총장국

목 차

I. 회의 개요

1. 제1차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개요

II. 보고 안건

1. 제1차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성원 보고
2. 총학생회 보고
3.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보고

III. 논의 안건

1.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질문 개진 및 선정에 관한 건
2.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대응 방안에 관한 건

IV. 기타 안건

1. 다음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V. 건의 안건

1.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에서 건의할 사항

I. 회의 개요

1. 제1차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개요

가. 일 시 : 2024. 1. 25.(목), 19:00~21:10 [약 2시간 10분]

나. 장 소 : 부산캠퍼스 문창회관 3층 대회의실

다. 상 정 안 건 : 총 5건

□ 보고안 3건, 논의안 2건

라. 재 적 위 원 : 38명

□ 재적위원 구성 - 의장(총학생회장), 부의장(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단과대학 회장단 및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마. 개 의 요 건 : 10단위 이상 참석

바. 의 결 요 건 :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

사. 참 석 위 원 : '[붙임 1] 제1차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참석자 명단' 참조

아. 기록물 작성자 : 사무총괄국장(준) 전영욱

자. 기록물 책임자 : 총학생회장 이창준

II. 보고 안건

1. 제1차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성원 보고

의장 : 간사께선 제1차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성원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람.

간사 : 재적 위원 38명 중 출석 14명, 대리 위임 0명, 서면 사전 결의 0명, 의장 위임 0명으로 개회 요건인 10단위 이상이 출석한 것으로 성원을 보고함.

의장 : 개회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제1차 임시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개회하겠음.

2. 총학생회 보고

의장 : 총학생회 보고와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보고는 지난 제5차 확운위 개회 후 이틀이 지난 시점에 임시 확운위가 개회된 점을 고려하여 제6차 확운위 때 일괄하여 보고받는 걸로 하겠음.

3. 단과대학 및 동아리연합회 보고(가나다 순)

간호대학 학생회	- 간호대학 보고 안건 없음
경영대학 학생회	- 경영대학 보고 안건 없음
경제통상대학 학생회	- 경제통상대학 보고 안건 없음
공과대학 학생회	- 공과대학 보고 안건 없음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	- 나노과학기술대학 보고 안건 없음
동아리연합회	- 동아리연합회 보고 안건 없음
사범대학 학생회	- 사범대학 보고 안건 없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 사회과학대학 보고 안건 없음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	- 생명자원과학대학 보고 안건 없음
생활과학대학 학생회	- 생활과학대학 보고 안건 없음
약학대학 학생회	- 약학대학 보고 안건 없음
예술대학 학생회	- 예술대학 보고 안건 없음
인문대학 학생회	- 인문대학 보고 안건 없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 자연과학대학 보고 안건 없음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	- 정보의생명공학대학 보고 안건 없음
의과대학 학생회	- 의과대학 보고 안건 없음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보고 안건 없음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학생회	-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사과정 보고 안건 없음

III. 논의 안건

1.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질문 개진 및 선정에 관한 건

의장 : 먼저 첫 번째 논의 안건은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이하 총추위) 선거 관련 질문 개진 및 선정에 관한 건임. 해당 안건은 학운위 여러분께서 총추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해당 의견을 추려서 각 선거운동본부에 일괄 전송하고 회신이 오는 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는 편향되지 않고 학우분들께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람. 그럼, 학운위 여러분들께선 각 단위의 대표자 지위에 있으므로 거시적인 측면이든, 미시적인 측면이든 상관없으니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람.

사회(부) :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보통 선거와 관련하여 질문을 할 때 공약을 보고 질문을 할 텐데 이번 총장 선거에도 각 후보자 공약이 있는지?

의장 :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제22대 부산대학교 총추위 선거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여 드리겠음.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각 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통해 공약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임. 그런데 금일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것은 개별 후보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전체 후보자에 대한 공통 질문이어야 하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람.

예술(부) : 예술대학과 관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함. 예술대학은 등록금 이외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함. 예를 들면 실기를 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재료가 있을 것이고, 도예 전공을 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마를 달고 하게 되는데, 가마비를 학생이 부담하게 됨. 이외에도 졸업하기 위하여 졸업 전시를 해야 하는데 재료비와 같은 비용이 최소 2,000,000원에서 최근에는 6,000,000~7,000,000원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와 관련한 예술대학 학생들에 대한 졸업 전시 대관료 지원이라든지, 차라리 등록금을 인상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 소요 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여쭙보고자 함.

의장 : 먼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인해 쉽사리 인상하지 못함. 이외의 나머지 내용에 관해선 의논하여 보겠음.

사회(부) : 단과대학 대표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자 하는데, 자료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 중 대부분이 자기소개서 관련된 내용이거나 NCS에 관련된 강연이었고 사회과학대학 전공과 직결되는 프로그램이 16개 정도가 있었음. 대학 본부에서 추진하는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 수를 확인했을 때 6,000여 개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의 선택지 폭이 좁다고 생각했고, 이 점에서 특정 단과대학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단과대학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편성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함.

인문(정) : 원론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 간 반영 비율이 다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총장 후보자들께선 학생 반영 비율 10%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의장 :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1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교원과 직원 그리고 학생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투표 반영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음. 이전에는 학생이 제외되어 있었는데 2021년 개정되었고, 그럼에도 직능단체별 반영 비율을 개정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총추위 위원장에게 있음. 즉 현 총추위 위원장이신 교수회장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총장에겐 권한이 없으므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람.

공과(부) : 공과대학에만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 전공 필수 과목에 대해서 수강해야 하는 인원수 대비 강의 수강이 가능한 인원수가 적어 불가피하게 1년을 더 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관련하여 단과대학이나 학과에 말씀을 드려보면 그에 대한 답변이 “수강 신청은 개인의 역량이다”라는 것과 “해당 강의의 분반을 개설하기 위한 교수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었음. 그런데 이는 학생의 불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전공 필수 과목의 경우 수강 대상 학년이 넘어갈 경우 2차 수강 신청을 통해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전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과 재수강하는 학생 등 그 수가 많다 보니 불가피하게 5학년이 된 후 졸업해야 할 때 학과 사무실에 부탁드려서 수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것에 관한 해결책을 여쭙보고자 함.

생과(부) : 본인은 총장께서 새벽별 도서관 동상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부실하다거나 시월광장 너머에서 인문관에 올라가는 계단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다거나 등 학생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계신 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듣고자 함.

정의(정) : 현재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은 소속 학부가 두 학부밖에 없는데 각 학부가 다른 캠퍼스에 편제되어 있어서 단과대학이 설립된 이후 한 번도 단과대학 학생회가 교류하는 일이 없었음. 따라서 캠퍼스 간 교류를 위해 총장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경통(정) : 문창회관에 링크 사업단 사무실이 있는데 링크 사업단이 창업이나 취업 또는 산학연 연계를 주관하는 부서인데 예술대학과 이공계열의 대학은 해당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인문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함.

자연(정) : 지난 화요일 확운위가 끝나고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미 직능단체별 반영 비율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아 질문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학생의 영향력과 학생이 총장 선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의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의장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의찮지만, 학생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는 질문 위주로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램. 물론 본인 역시 자연과학대학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기초 학문 보호 방안 등에 관해 질문하고 싶지만, 각 단과대학의 이해관계에 얽힌 질문보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드러날 수 있는 질문이었으면 함.

의장 : 물론 본인 역시 주신 의견에 동감을 함. 그러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카테고리에 있는 질문을 압축한 후 우리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자 함.

경영(정) :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입학하는 자와 졸업하는 자가 언론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임. 시설이나 생활 여건 등의 이유로 그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부산대학교 총장이라는 역할이 대한민국 제2도시라고 불리는 부산, 즉 지방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 학생이 지방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둔 것이 있는지 궁금함.

생과(부) : 최근 부산대학교 앞 거리에 임대 표지가 붙은 상가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모습이 자칫 부산대학교 앞 거리가 죽어간다고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부산대학교 앞 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생각 해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공과(부) : 경영대학 학생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착안하여 부산대학교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도 발전하지 못한다면 부산대학교에도 위기라고 생각하여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생각하는 지역과 연계한 부산대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 여쭙보고 싶음.

자연(정) : 의장께서 다양한 질문을 듣고 정리하고자 하시려는 것 같아 현재 부산대학교 교육 분야에 있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먼저 2025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학생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려고 했는지 작년도에 그러한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타 국립대학에 비해 부족한 교양 필수 과목의 개편을 위해 논의하고자 하여도 교양교육원과 교육혁신처 간 소통 문제로 인해 논의가 어려웠음. 또 앞서 언급한 것 중 교양교육원과 교육혁신처 간 소통의 문제로 인해 총학생회 입장에서 교육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아 양 부처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쭙보고 싶음. 또 융복합 전공이 타 대학에 비해 부족한 실정인데 글로벌대학30 사업 계획서에 세부 전공(Micro Degree)에 관해 수록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 그런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지도 궁금함. 또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교육대학교에는 지원이 매우 많은 데 비해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해 우리 학교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불만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함. 마지막으로 교원의 수와 강의실 수 부족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인문(정) : 본인은 총장 후보자께서 학생과 관련한 질문에 어느 정도로 엄중하게 답변하는지가 궁금하여 문제를 나열하고 그것에 관해 알고 계시는지와 관련하여 질문 방식을 구성하였으면 함.

의장 : 말씀해 주신 의견을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장 후보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추가로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신지?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임시 학운위 1번 안건 2024년 총추위 선거 관련 질문 개진 및 선정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음. 2024년 총장 임용 후보자에게 제공할 질문지 내용 구성 및 송부 제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총학생회장 이창준에게 일임하는 것에 동의하는 위원께선 손을 들어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기를 바람.

“ 의결 1.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관련 질문 개진 및 선정에 관한 건: 재석 위원 14명 중 14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

2.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대응 방안에 관한 건

의장 : 다음 안건은 2024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대응 방안에 관한 건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일 대학 본부에 방문하여 얘기를 나누었고 대학 본부 측에선 본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보였음. 그래서 학운위 구성원 여러분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고자 하며, 그 전에 후보자별 득표수 환산 식과 다양한 이해 관계인과 나눈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먼저 설명하고자 함. 후보자별 득표수 환산 식은 “교원 선거인 수 X 구성단위별 반영 비율 X 후보자별 구성단위별 득표수/구성단위별 선거인 수”임.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대응 방안에 관한 건을 다양한 이해 관계인과 얘기했을 때 입장 차이가 두 가지로 나뉘었음. 먼저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했다” 관한 것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작년 학운위 의결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당시에는 학생 반영 비율이 낮으니 학생 반영 비율도 높이면서 21대 총장 선거와 다르게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총장 선거를 진행해 보자는 교집합을 형성하였고, 우리는 이 방안을 원했음. 그래서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2번에 걸쳐 진행했음. 이것이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임. 그리고 또 다른 입장이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했다”임.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임. 이를 위해 온라인에선 부산대학교 공식 애플리케이션 PUSH,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태그 이벤트 및 단체 채팅방 카드뉴스 공지, 메시지 등의 방법을, 오프라인에선 간식 행사를 진행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해당 선거의 참정권과 관련된 소식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음. 따라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선거인 명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선거가 종료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물론 작년 학운위가 의결하고 총추위와 협의를 거쳤음에도 현재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불합리한 면이 있음. 따라서 잘못을 떠나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방식대로 추진한 것에 관해선 입장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 이러한 문제가 4년 뒤에 있을 제23대 총장 선거에서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 진행 과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였음. 그러나 총장 선거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입장문을 게시한다면 자칫 학생이 총장 선거라는 하나의 정치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하였고 단지 차기 총장 선거에서 이러한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하는 것이기에 선거가 끝난 이후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이 어떤지를 확언위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본인이 제시한 방안이 절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관련해서 여러 직원과 보직 교수, 겸임교수, 조교 등 이해 관계인과 만났지만, 그들 역시 정답이라고 제시해 주는 방안은 없었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람.

예술(부) : 그럼 학생이 투표하는 방법에 관한 사안인 모두 결정이 난 것인지?

의장 : 관련해선 학생과 직원 그리고 조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이 났음.

인문(정) : 그런데 총장 후보자들 역시 교수의 표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학생회에서 입장문을 게시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지?

의장 : 그 부분을 본인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현재 총추위가 운영되는 방식이 의견을 구할 때도 단체 채팅방을 이용하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총학생회 입장문을 게시하고자 하는 것임.

인문(정) : 그렇다면 총학생회 확언위가 입장문을 게시했을 때 이 영향력에 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장 : 물론 학생회가 다른 직능단체보다 총장 선거에 있어 영향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느 직능단체보다 많은 구성원이 있기에 일반 학우분들까지 우리의 의견에 동조하여 주신다면 그 영향력은 가히 막대할 것임.

사회(부) : 일단 의장께서 제시한 입장문을 게시한다는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만약 이번 총장 선거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시기를 적절히 선정하여 행동으로 옮겼으면 함.

예술(부) : 본인은 만약 입장문을 게시한다면 이번에 합의된 내용으로 의결된 것을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에 관해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한 학우를 대상으로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다른 학우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기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의견 수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함.

의장 : 관련하여 이야기했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합의된 내용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합의한 것이었다고 함. 즉 의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총추위에서 구두 합의라고 정정한 것임.

공과(부) : 지난 확언위에서 여쭙봤던 것 중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학생의 동의 없이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를 이관한다고 했을 때 의장께서 관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도 공감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관하는 것에 관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것을 단지 관례라고 치부하기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의장 :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조항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구성되어 있지만 부산대학교는 총추위가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진행함. 즉 총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추위에서 규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그것이 공직선거법만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경통(정) : 만약 입장문을 선거 종료 후 게시했을 때 학생이 원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이 되어 입장문을 게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공과(부) : 그렇다면 선거를 시작하는 동시에 입장문을 게시하여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어떤지?

의장 : 해당 의견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자연(정) : 본인 역시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임. 입장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이유가 학생의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하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함. 지난번에는 보이콧을 했었는데 그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정에 우선하여 대책을 고려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과(부) : 본인은 입장문을 작성하게 된다면 총학생회의 역할이 학생 사회와 관련하여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어야 하니 총추위로부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적시하여 학교 당국을 목표로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에게 설명하여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사회(부) : 입장문을 게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입장문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차분히 목소리를 담는 방법과 비교적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차분히 목소리를 담아 우리의 입장문을 게시했을 때는 후자보다 전달력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생각함.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앞선 구두 합의 등 입장문 내용과 관련된 증빙 자료인데 그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람.

인문(정) :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시위를 하자는 의미가 아닌 이상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만약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대응이 늦어질 경우 의사 전달에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의장 :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이 학생 의견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본인이 심히 고려되는 사항은 일전에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에 관한 것임. 결국 총추위에서 헌법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합의 내용을 뒤집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것이 학생에게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합의였는지 고심됨.

자연(정) : 본인도 의장께서 해주신 말씀에 동감하는 게 만약 우리가 입장문을 작성하여 게시한다면 그것을 부산대학교의 모든 학우께서 동조하여 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혹여나 이런 점에서 반감을 일으키진 않을까 본인 역시 고심됨.

의장 : 마찬가지로 본인도 앞서 얘기했지만, 학우분들이 체감하기에 총학생회가 학생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할까봐 이 점이 가장 우려됨.

생자(정) : 그렇다면 입장문을 작성할 때 학생의 참정권을 보장하려 해주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총추위의 부당한 점을 적시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의장 : 그 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자연(정) :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학교 측과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되진 않았으면 함. 우리 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대학 본부와도 소통이 잘 되는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선 개인적으로 반대함.

생자(정)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입장문을 작성할 때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언급해 주셨으면 함.

의장 :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을 반영하여 입장문을 작성하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음. 그렇다면 이 입장문을 게시하는 일자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부) : 혹시 입장문을 선거 전날에 게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문(부) : 만약 선거 전날에 게시하게 될 경우 총학생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입장문을 게시했다고 생각할 것 같음.

생과(정) :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투표 3일 전에 게시한다면 괜찮을 것 같음.

사회(부) : 본인의 의견은 개표 결과와 관련 없게 입장문을 게시하려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전인 투표 전날이 맞다고 생각함.

의장 : 한 가지만 더 확실히 짚고자 하는데, 그렇다면 위원분들께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선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술(부) : 모수를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제대로 된 의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생과(부) : 본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한 분들은 총장 선거에 관심이 있지만 반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총장 선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 인지가 부족한 분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만약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 반영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사전에 투표에 참가할 사람을 선거인 명부로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의장 : 다들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장단과 득실이 확실하다고 생각함. 물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역시 마찬가지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어진 규칙 내에서 학생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일단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선거가 종료된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지금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우리의 의견이 특정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됨. 즉 이미 규칙이 정해진 상황에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입장문을 통해 지금 당장 총장 선거에 영향력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 학생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이에 관해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예술(부) : 주신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추가적인 의견인데 입장문을 작성할 때 학교 측에서 학생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확실하게 문제로 삼았으면 함. 총장 선거에 관한 홍보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확인했던 바에 따르면 학생회 차원에서만 총장 선거에 관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활동을 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점을 입장문에 담아주셨으면 함.

인문(정) : 혹시 총학생회 측에서 입장문을 게시하고 나서 각 단과대학에서 별도의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도 괜찮은지?

의장 : 현재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하여 들었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총학생회와 유사한 방향으로 입장문을 게시할 것이라 사료되어 입장문을 게시해도 된다고 생각함.

사회(부) : 본인이 이번 총장 선거의 상황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결국 입장문을 게시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만약 학생의 입지가 계속하여 좁아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 정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학생 자치의 영역이 줄어드는 일이 또 발생했을 때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걸 입장문에 담아주셨으면 함.

의장 : 비단 이번 입장문이 총장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학생의 입지를 줄여나갈 경우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짐. 이 점 역시 참고하겠고 일단 큰 틀은 본인이 제시한 의견대로 진행하는 것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신지? 추가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위원 여러분께서 학생 자치를 위해 얼마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 또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숙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V. 기타 안건

의장 : 기타 안건을 발제할 위원이 있으신지? 기타 안건은 없으므로 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V. 건의 안건

의장 : 건의 안건을 발제할 위원이 있으신지? 건의 사항이 없으므로 제1차 학운위 임시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 구성원

※ 의장(총학생회장), 부의장(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단위별 회장단)

주재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이창준	○	부총학생회장		서승범	○
운 영 위 원	간호대학 학생회장	송경민	X	운 영 위 원	간호대학 부학생회장	예채영	X
	경영대학 학생회장	김도연	○		경영대학 부학생회장	장서윤	X
	경제통상대학 학생회장	김상훈	○		경제통상대학 부학생회장	김한영	X
	공과대학 학생회장	박기돈	○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권민수	○
	나노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이승록	X		나노과학기술대학 부학생회장	정유철	X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김상원	X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이서현	X
	사범대학 학생회장	배어진솔	X		사범대학 부학생회장	송주윤	X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석영	X		사회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김다혜	○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조석훈	△		생명자원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안장현	X
	생활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채미	X		생활과학대학 부학생회장	장현희	○
	약학대학 학생회장	김담희	X		약학대학 부학생회장	한승윤	X
	예술대학 학생회장	최서윤	○		예술대학 부학생회장	이지현	○
	의과대학 학생회장	강찬우	X		의과대학 부학생회장	정현지	X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준서	○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박금서	△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이지원	○		자연과학대학 부학생회장	김원석	X
	정보의생명공학대학(비)	강규석	○		정보의생명공학대학(비)	김효정	○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오준엽	X		치의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오가은	X
	한의학전문대학원(비)	최태영	X		한의학전문대학원(비)	정덕윤	X
대 리 출 석							
비 고 (△)		인문대학 부학생회장,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생회장 회의 중 입장					
간 사		총학생회 사무총괄국장(준) 전영욱					

□ 참관인
